

## 코르셋의 양면성에 관한 고찰 - 포스트페미니즘 시각을 중심으로 -

임 은 혁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부교수

### The ambivalence of corset: Post-feminism perspectives

Eun-Hyuk Y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2018. 7. 10 접수; 2018. 9. 18 수정; 2018. 9. 27 채택)

#### Abstract

This study discusses the ambivalence and ambigu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men's body and fashion drawings in respect to post-feminism perspectives. Deconstructivist post-feminists, perceiving the body as a passive subject, asserted that women internalize the male gaze by becoming the object of male desire, then manipulate the body to conform to that ideal. In this perspective, corsets assumed the role of the tool for forcing women's body to be obedient, restraining and suppressing the body. On the other hand, in the essentialist post-feminist perspective, which regards the women's body as an active object, insists that fashion, in its essence, is not necessarily about sex, nor is it devised to attract the male gaze. In such a viewpoint, the women's body functions as a vehicle for empowerment; by wearing corset women gain power and embraces the cultural norms of dominant beauty. As investigated in this study, the corset is both a tool for oppressing the women's body, as well as a vehicle for the voluntary expression of femininity. This ambival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corset in the post-feminist theory represents the double-sided perspective in fashion as being both a subordinate construction and a powerful tool for self-expression.

*Key Words:* corset(코르셋), post-feminism(포스트페미니즘), body(몸), ambivalence(양면성)

## I. 서론

몸에 대한 친밀성으로 인해 패션은 여성성을 재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여성에게 있어 소통의 역할을 하는 주요한 언어로 작용한다 (Buckley & Fawcett, 2002). 최근 어

떻게 패션이 여성의 몸을 표현하고 조작하는가에 관한 상당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에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이론이 만나게 되면서 여성성에 관한 새로운 해석이 등장하였는데, 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 의해 여성성과 여성의 몸 이미지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

† Corresponding author ; Eun-Hyuk Yim  
E-mail : ehyim@skku.edu

이루어졌다.

페미니스트들에게 몸은 여성의 체현된 경험과 여성성의 문화적·역사적 구성에 관한 이해의 중심이 되어왔다. 지난 사십여 년 간 여성의 몸에 관한 페미니스트의 연구가 다양한 분야 및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성의 몸은 다양한 맥락에서 수많은 경험적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경험하고, 여성의 몸이 사회문화적 실천에서 어떻게 암시되며,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상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페미니스트들은 패션을 사회의 정치·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여성의 주의를 돌리려는 일종의 음모로 이해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패션에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하여 소비의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패션을 여성을 열등한 사회계급으로 국한시키는 도구로 간주한다. 패션은 자기몰입을 강화하여 사회적, 문화적, 지적 시야를 축소시킨다는 것이다(Finkelstein, 1996). 이렇듯 페미니스트 이론은 패셔너블한 복식을 여성 억압의 일부로 해석하여 거의 모든 사회에서 젠더의 구분은 여성을 종속적 위치로 지정한다고 본다. 페미니즘에서 패션과 자기 미화는 종속의 표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와는 다르게, 포스트모던 해석에서는 여성과 패션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패션은 여성의 억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관점이 등장했다. 윌슨(Wilson, 1984)은 패션은 종종 젠더의 구분에 유희적인 방식으로 도전하고 고정관념을 뒤엎으며 오히려 여성성의 가면을 인식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패션은 내면을 외부세계로 표출하는 통로이므로, 사회적 자아를 생산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고 복식은 이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패션을 도구로 하여 여성은 자연에서 문화로 변화한다. 패션과 페미니즘의 갈등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일 것이다(Kawamura, 2005). 이에 대해 윌슨(Wilson, 2003)은 양면성과 모순성은 패션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라 하였다. 몸과 패션을 통한 여성성의 표현에 있어 패션은 욕망뿐 아니라 공포를 표현하는 양면적인 매체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반대감정이 병존하는

패션의 양면성(ambivalence)의 개념을 근간으로 하여 코르셋을 중심으로 몸-패션(body-fashion)에 관하여 포스트페미니즘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페미니즘 이론을 복식을 착용한 몸 또는 사회화된 몸에 대한 연구를 위한 분석의 도구로 사용하며, 복식을 착용한 여성의 몸에 관한 현대 페미니즘 이론을 살펴보고, 코르셋을 중심으로 한 패션과 여성의 몸의 관계에 관한 페미니즘의 양분된 관점과 그 양면성 및 모호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서양복식사를 통해 코르셋이 대표적인 신체 변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그 변형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된 것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을 중심으로 패션에서의 포스트페미니즘을 고찰하고자 한다.

코르셋의 착용은 정숙한 복장의 필수요건으로서 일종의 도덕률로 간주되었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코르셋을 여성 억압의 도구와 질병 및 신체 쇠약의 원인으로 인식해왔다. 한편 쿤즐(Kunzle, 1982)은 해로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코르셋은 단지 물리적 버팀대가 아니라 긍정적인 신체적 및 성적 쾌감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신체를 원하는 모양으로 변형하기 위한 도구로 일컬어지는 코르셋을 여성성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도 존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비평적인 분석을 요하며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코르셋은 에로틱함과 정숙함을 동시에 아우르므로 그 상징성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이 끊임없이 패션디자인에 등장하면서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는바, 현대 패션에서의 코르셋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코르셋을 중심으로 한 본 연구 결과의 의미를 확대 적용하여 패션연구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여성이 코르셋으로 몸을 패셔너블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코르셋을 중심으로 복식을 통해 끊임없이 몸을 변형하는 현상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포스트페미니즘과 몸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은 성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평등을 정의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일련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치적 움직임을 일컬으며, 복식과 신체적 활동영역의 변화도 페미니스트 운동의 일부로 간주된다. 서구에서 페미니스트 운동은 여성의 참정권, 성 중립적 언어표현, 출산관련 권리, 재산 소유의 권리 획득 등 여권의 사회적 변화의 주요 동인으로 인정된다. 페미니스트 운동에서 출발한 페미니즘 이론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경험을 고찰함으로써 성불평등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며 젠더 이슈에 관련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현대 페미니즘에 기초를 제공한 보봐르(De Beauvoir, 1961)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기보다는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진술한바 있다. 여성이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재현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을 통해 보봐르는 여성이 제 2의 성으로서 절대적 타자임을 주장하였다. 보봐르에 따르면 여성성이란 본질이나 천성이 아닌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상황이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구성되므로, 변화될 수 있고 또 변화될 것이다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0). 보봐르의 개념은 '행동하는 성(doing gender)' 이론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복식과 몸의 스타일링은 행동하는 성을 표상하며 패션은 성을 공적으로 가시화하므로(West & Zimmerman, 1987), 보봐르의 시각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구분을 강화 혹은 전복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패션의 잠재성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현대소비문화가 여성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페미니즘 이론 뿐 아니라 젠더 연구에 기여한 보르도(Bordo, 1993/2003)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몸을 정치적으로 각인된 실체로 보고 그 형태와 기능이 억압과 통제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션으로 인해 겪는 여성들의 고통이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며 지배적인 성 차별 이데올로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사소한 유행에 매혹되어 허리를 조여 매거나 성형 수술로 신체적 불편을 기꺼이

참는 것이 여성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은 이 명제에 대항하여, 여성은 행위자라기보다 행위를 하도록 강요받는 자이므로 여성이 패션에 굴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속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반명제는 한계를 드러내어 1980-90년대에 이 주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즉, 남성이 여성에 대한 권력을 소유하며 여성은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고 보는 단순한 억압자/피억압자 모델은 남녀의 복잡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의미의 복수성을 간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서는 메이크업, 유행복식, 성형 등에 창조적 혹은 전복적 성격이 있다고 역설한다. 몸과 복식의 테크닉을 여성을 억압하는 것으로서만 간주한 과거의 페미니즘 담론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침으로써 여성이 몸을 다듬고 치장하는 즐거움과 문화의 재생산에 있어서의 여성의 능동적인 역할에 주목한 것이다 (Bordo, 1993/2003).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페미니즘은 크게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초기 여성운동과 20세기 후반의 포스트페미니즘으로 대별될 수 있다 (Humm, 1995/1995). 자유평등 사상과 계몽주의에 입각하여 참정권, 노동권, 소유권, 교육권 등을 위해 투쟁했던 여성운동은 과거의 페미니즘이라고 한다면, 1960년대 말부터 제기된 페미니즘을 현대적 의미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과거 인본주의적 페미니즘은 목전의 권익만을 추구하여 성차별의 구조적 모순을 변화시킬 시각은 갖지 못한 반면에, 타자 의식에서 출발한 포스트페미니즘은 타자 이데올로기의 구조적 모순에 주목할 뿐 아니라 타자로서의 여성을 새롭게 해석한다 (임수정, 2002).

1980년대 이후에는 후기구조주의, 기호학, 그리고 정신분석학을 수용한 포스트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 발전하면서 공통적으로 지배계급과 주변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그리고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데에 관심이 대두되었다 (정현숙, 정홍숙, 1997). 처음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고찰한 오웬스(Owens, 1993)는 페미니즘이 메타내러티브(meta-narrative)를 거부하고 차이를 강조하며 재현에 내

포된 권력구조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포스트모던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 권력의 해체와 다양성, 그리고 타자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이 만나게 되고 이로써 포스트페미니즘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포스트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 이론의 철학적 관점을 공유하는 사상으로, 고정된 미의 관념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성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상을 말한다. 인본주의 페미니즘이 여성 권익의 옹호를 위한 정치운동이었다면 포스트페미니즘은 가부장제적 사회구조를 검증하고 해체하는 문화적 활동으로, 미술, 문학, 영화와 연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표현되고 있다 (주영은, 2006).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목표는 본질적 성차에 대한 잠재된 가정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전통적인 성의 범주의 틀을 해체하는 것으로, 성을 넘어선 개인적 경험과 인간 존재의 다양한 맥락적 해석을 강조한다. 포스트페미니즘 학자들은 성(sex)과 젠더(gender)의 구분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고정된 실체라고 간주되던 몸을 확실하게 정의되기 어려운 존재로 여긴다. 즉, 자연스럽고(natural) 초월적인(trans-historical) 몸에 대한 가정이 의심을 받으면서 몸의 확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몸의 협상가능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고조로 몸을 고정된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Evans & Lee, 200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성은 비고정적이라는 전제하에 기존의 여성상과 여성성을 고착화시키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부정하였는데, 이는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Benstock & Ferriss, 1994). 하나는, 여성성은 비고정적인 만큼 긍정적인 여성성을 수립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개념하에 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옹호하는 본질론적 입장으로, 본질주의를 대변하는 프랑스 페미니스트들은 차이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여성성을 대두시키고 여성 특유의 경험에 의거하여 차이를 개념화한다.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이리가레이(Luce Irigaray), 시쿠스(Hélène Cixous) 등이 대표적인 본질주의 페미니스트이다 (김영희 외, 1992). 다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체주의 페미니즘으로, 현 가부장제

의 붕괴를 목적으로 성차를 무효화하는 전략을 통해 남성/여성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해체하고자 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즘은 자연적 성(sex)에서 문화적 성(gender)으로 시선을 돌려 성은 사회적으로 구축되며 역사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후기구조주의 사상을 수용하여 이분법의 대립항을 구성하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하는데, 데리다(Jacque Derrida)와 위든(Chris Weedon)의 이론에서 출발한 스피박(Gayatri Spivak)과 해체이론과 정신분석학을 함께 수용한 폴록(Griselda Pollock) 등이 대표적이다. Benstock and Ferriss(1994)는 구두를 은유로 사용하여, 미국 페미니스트들은 낮은 굽의 구두로, 프랑스 이론가들은 날렵하고 매력적인 구두로 비유하기도 하였다.

### 1. 본질주의의 포스트페미니즘: 능동적인 몸

보바르 세대의 페미니즘이 여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논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후 프랑스 페미니즘은 여성은 남성과 다르므로 그 차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변화하였다. 크리스테바와 이리가레이 등의 본질주의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여성성을 남성중심적 사고에 대한 도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드러낸다.

본질주의의 포스트페미니즘은 선천적으로 소외된 여성성이 아닌 긍정적 여성성에 주목하여, 오히려 여성적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으로부터 구별 및 분리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Donovan, 1992/1999). 즉, 여성의 특성은 여성의 몸에 있으므로 여성의 몸과 성은 진정한 상상력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남근중심주의적 시각에서의 부정적인 여성성 대신 여성의 성적 특성을 찬양하는 긍정적인 여성성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여성성은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수동성과 의존성을 강요하는 악덕(惡德)이 아니라 여성의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미덕(美德)이므로, 남성성/여성성은 부정되어야 할 '차별'이 아닌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차이'라는 것이다 (임수정, 2002).

프랑스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본질주의의 페미니즘은 여성적 체현의 특수한 양상을 탐구하기 위해 성적 차이를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 남성우월

주의적 언어의 제약에서 탈피할 것을 호소한 시쿠스에서 시작하여, 남성과 여성은 존재론적으로 다른 버전의 인간임을 강조하는 디퍼런스 페미니스트(difference feminist)인 이리가레이와 크리스테바는 쾌락과 흥분, 관능과 모성적 즐거움의 장소로서의 여성의 몸을 표현하는 방식을 연구했다. 데이비스(Davis, 1997)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적 경험과 성적 경험에서의 차이점 또는 여성적 욕망의 독특한 방식에 대한 이러한 호소는 여성적 체현의 물질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다.

다시 말해, 패션의 미학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남성의 응시(male gaze)를 끌도록 고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패셔너블한 복식에는 성적 유인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기도 하며, 성적인 유혹이 존재하더라도 다른 기준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브레이도티(Rosi Braidotti), 이리가레이, 르 도프(Michèle Le Doeuff) 등의 최근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여성과 패션이 속한 세계를 물질세계로 규정함으로써 패션을 그 자체의 언어로 개념화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패션의 세계는 물질세계이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동하는 표면의 세계라는 것이다. 특히 이리가레이와 브레이도티와 같은 이론가들은 여성과 패션이 관련되어있다는 주장을 통해 페미니즘이 가부장제를 저항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패션과 여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여성을 가부장제를 구성하는 정신과 사교의 세계에 반대되는 물질적 세계와 동일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패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패션의 이용 가능성에 주목한다. 즉, '패션의 피조물(creatures of fashion)'인 여성이 어떻게 가부장적 이해를 진복시킬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Gibson, 2000).

요컨대 본질주의 포스트페미니즘에서는 여성성을 욕망을 표현할 수 있는 미덕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남성중심주의에 도전하는 원천으로 삼는다. 더불어 패션을 성적 유인의 도구로 보기보다는 가부장제에 저항할 수 있는 패션의 가능성에 주목한다.

## 2. 해체주의 포스트페미니즘: 수동적인 몸

본질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스트들이 기존의 가치체계를 부인하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대두시킴으로써 인식 자체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비해, 위든, 스피박, 폴록 같은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식의 허구를 주장하고 진리와 절대를 불신했다. 또한, 본질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남녀대립구조를 유지한 채 여성성만을 재해석하였다면 해체주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서구 인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위해 해체이론을 적용하였는데, 특히 데리다의 언어이론과 푸코의 담론에 주목하여 대립항을 이루는 각 항목의 정체성을 거부함으로써 이분법을 해체시켰다.

요컨대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는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자연적 성으로부터 문화적 성으로 초점을 이동하여 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역사적으로 변화함에 주목한다. 즉, 기호의 자의성에 근거하여 부계적 이데올로기적 개념에서의 여성을 비고정적 범주로 간주하고, 여성성을 구축한 사회적 구조 자체를 해체함으로써 여성관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부계적 가치체계를 붕괴코자 하는 것이다(임수정, 2002). 해체주의 포스트페미니즘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분법에서 해방된 중성성과 양성성을 실천의 목표로 하여,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통해 성차별주의를 극복하고자 한다.

해체주의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범주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다. 현재의 몸에 대한 인식은 몸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깊숙이 사회화된 몸에 대한 기대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여성의 몸은 불안정하고 침투 가능한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반해, 남성의 몸은 안정적이고 경계가 확실한 대상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몸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여성과 여성의 몸이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게 하므로 여성에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Evans & Le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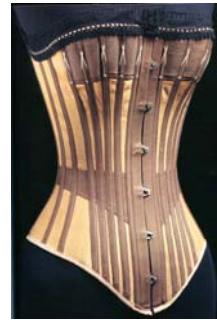
물질은 수동적이고 비활동적인 반면 정신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이라는 서구철학의 위계적 이분

법에서는 남성은 이성과, 여성은 감성과 동일시되었다. 여성은 그 생물학적 조건으로 인해 남성보다 육체에 더 가까운 존재로 규정되었다. 서구철학에서 여성은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며 직관에 의존하는 존재, 즉 논리적으로 비일관적인 존재로 간주되었다 (손보경, 1997). 그러나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제적인 사회에서 소외되어왔던 여성에 대한 인식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서서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해체주의 페미니즘 학자들의 담론은 현대의 문화적 담론이 첫째, 여성이 남성의 응시를 내면화하고 자신을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였으며, 둘째, 날씬함과 젊음이라는 여성의 외모에 대한 문화적 이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자기 감시를 하도록 하고, 셋째, 다이어트, 운동, 미용제품과 패셔너블한 복식 착용 등의 통제적인 행위를 유도하여 문화적 이상에 순응하기 위해 몸을 조작하도록 사회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성의 몸은 순종적으로 변하고 '익명의 가부장적 타자(anonymous patriarchal Other)'로 뿐 아니라 여성 자신의 통제적 응시의 대상으로만 들어진다는 것이다 (Tyner & Ogle, 2009).

이와 같이, 해체주의 포스트페미니스트들은 여성성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중성성과 양성성 등 제 3의 성을 통해 전통적 이분법적 구분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는 여성은 남성욕망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통제 및 감시하여 이상에 순응하고 자신을 상품화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분법적 사회구조 자체를 해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 Ⅲ. 패션과 몸에 관한 포스트페미니즘 시각: 코르셋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여성은 몸을 상징적 언어로 사용해왔다. 중세 이후 서양에서 8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여성의 단식(diet)은 여성의 식욕이 시대마다 사회문화 체계에 의해 규제되고 관리되어 왔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10세기 후반에 도입된 중국의 전족도 가부장적 권위를 강조하는 유교 전통 속에서 천 년 넘게 유지되었다.



〈그림 1〉 Corset, c.1890

(출처: Underwear fashion detail (p91) Lynn, E. 2010, London: V&A Publishing)

1950년대에 등장한 스틸레토 힐은 전족의 현대적 연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Hong, 2004). 하이힐을 신으면 옆모습이 이루는 S자 곡선이 강조되어 관능미가 강조되지만 각종 척추질환과 통증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무엇보다 19세기 유럽과 북미 여성들에게 보편화되었던 코르셋은 몸에 가해졌던 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다(그림 1). 서구복식에서 코르셋은 반세기 넘게 여성들이 사회적 미의 기준에 부응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코르셋은 착용자의 토르소를 죄고 압박하여 코르셋 위쪽의 부드러운 조직은 에로틱한 데콜타주를 만들며 흉강의 움직임에 제한하고 상체를 곧추서게 하여 착용자의 자세를 바꾼다. 코르셋은 몸의 형태뿐 아니라 그 움직임과 소통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대표적인 복식 아이템이다(Welters & Lillethun, 2007).

앞서 2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성차별 그 자체보다 그 차이를 만드는 사회문화적 배경의 재현과 이념적 구조에 초점을 둔다. 1980년대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평등의 추구보다는 차이에 주목하였으며, 이는 다시 차이를 옹호하는 본질주의와 차이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해체하는 해체주의로 구별된다.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포스트페미니즘의 몸에 대한 능동적 관점과 수동적 관점을 근거로 하여, 코르셋을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의 도구로 보는 관점과 억압의 도구로 보는 상반된 관점에서의 코르셋의 상징성과 의미에 관해 고찰한 후, 두 가지 관점에 내포된 양면성에 관해 논의하도록 한다.

## 1.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으로서의 코르셋

코르셋을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으로 보는 관점은, 패션이 오랫동안 여성에게 쾌락과 쾌감을 얻는 수단을 제공해왔으며 이는 나아가 권력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지배자의 역할을 남성에게 국한하지 않고 문화적 이상미를 전파하고 유지하는 여성 자신의 참여를 고려한 것이다. 즉, 여성들은 여성성의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즐길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여성의 몸은 개인 권력의 운반체로 작용한다. 지배적인 문화적 이상미와 성적 매력에 순응함으로써 여성은 지배적 미에 대한 문화규범을 수용하여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임은혁, 2011). 오늘날 여성들은 가늘고 마른 체형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드러내며, 날씬함이라는 현재의 이상을 성취함으로써 권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Tyner & Ogle, 2009).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의 몸은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 운반체보다는 변화를 향한 능동적 행위자가 된다.

다시 말해, 여성은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한 몸의 통제와 훈련을 통해 신체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순종적이고 신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문화적 담론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을 단단한 근육질의 남성적 신체와 비슷하게 만드는 전략을 통해, 신체적 효율성이라는 전형적으로 남성에게 적용되었던 권력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은 성적 매력을 사회 권력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에스트리치(Estrich, 2000)에 따르면 성적으로 매력적인 외모는 사회에서 가치 있는 일종의 통화(通貨)로서, 여성에게 있어 몸은 신체적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자본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여성미의 규범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여성이 신체미를 권력의 원천으로 사용한다는 착각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여성의 생리학적 건강을 해치고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을 내포한다.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적 결핍에 대해 근심하게 하고 몸에 대한 자기통제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르셋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수의 19세기의 의사들이 코르셋이 가임 여성에게 치명적인 악영

향을 끼친다고 한 반면, 일부 코르셋에 찬성하는 의사들은 여성의 약한 몸을 지지하기 위해 코르셋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페미니스트들조차도 코르셋에 대한 의견에 일치를 보이지 않았다. 많은 여성들에게 코르셋의 단단함은 자제심과 체면을 지켜주었다는 것이다 (Ruark, 2011).

스틸(Steele, 2007)은 코르셋을 매도하는 학자들이 코르셋이 히스테리, 정신이상뿐 아니라 결핵, 유방암, 척추만곡, 자궁탈수 등을 일으킨다는 19세기 의학 보고서를 너무 쉽게 믿어왔다고 언급한바 있다. 스틸은 1867년부터 1874년까지 *The Englishwoman's Domestic Magazine*에 실린 코르셋에 대한 150통 이상의 편지를 분석한 결과, 많은 여성들이 타이트레이싱을 통해 극단적으로 가늘어진 허리에 대해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스틸은 코르셋이 실제로 여성의 건강을 해쳤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단순히 코르셋 입기를 좋아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루어크(Ruark, 2011)는 코르셋이 여성의 몸을 아워클래스 모양으로 다듬고 숨이 차게 만들어 에로틱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표현하도록 해주었으므로 여성들이 선호하게 되었다고 역설하였다. 서머스(Summers, 2001) 또한 남성이 자신의 삶을 재배하도록 허락하기 위해 여성이 구속적인 코르셋을 착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은 코르셋은 여성의 삶을 고양시켰다고 논했다.

특히 복식표현의 동기로서의 에로티시즘을 능동적인 관점에서 해석한 스틸(Steele, 1985)은 정신분석학을 바탕으로 패션사를 성적으로 설명하면서, 외양과 성적인 것은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코르셋과 같은 신체를 구속하는 복식이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나 성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나, 스틸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한 복식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면 여성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코르셋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인식 중 새로운 극단적 시각의 하나는 19세기 여성들 사이에 타이트레이싱 코르셋이 것처럼 인기 있었던 것은 훌륭한 어머니라는 모성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코르셋이 줄 수 있는 '반(反)모성적' 의미에 그 연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같이 코르셋을 해방

적 복식으로 이해하는 맥락에서 쿤즐(Kunzle, 1982)은 사회적으로 상승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코르셋으로 졸라매었으므로 이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동조가 아니라 사회적 열망과 공격적이었으며 일종의 반항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쿤즐은 타이트레이서(tight-lacers)들은 패셔너블해지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패션의 희생양(fashion victim)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논했다. 타이트레이서 집단은 코르셋 착용에 의한 압박에서 쾌감을 느끼는 여성들로서 성적 흥분을 즐기는 적극적인 여성들이라는 것이다. 그는 코르셋이나 하이힐 같은 아이템들이 남성에게 시각적 자극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촉각적 자극으로 성적 쾌감을 준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맥도웰(McDowell, 1992)은 빅토리아 여성들은 불편함에서 오는 에로틱한 자극과 심지어 코르셋이 죄면서 주는 고통까지 즐겼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성은 코르셋으로 인해 여성에게 고통이 가해지는 것을 얹으로써 성적 전율을 느끼고, 벗은 코르셋이 종종 피로 얼룩져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학적인 쾌감을 느낀다고 추정하였다. 맥도웰은 많은 여성이 코르셋의 착용이 자신을 더욱 매혹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확신으로 흥분을 느꼈다고 기술했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코르셋을 남성의 쾌락을 위해 여성을 구속하고 제약하는 복식으로 간주한 반면, 맥도웰은 그것은 공유된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코르셋을 여성 억압의 도구로 간주한 종래의 시각과는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견해로서, 패션을 여성의 구속 및 억압과 동일시하는 단순화된 주장에 대한 도전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현숙, 2000). 이들은 여성이 자신의 몸을 가꾸고 치장하는 것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현대패션에서는 알렉산더 맥퀸, 장 폴 고티에, 돌체 & 가바나, 티에리 뮈글러 등의 컬렉션에서 코르셋을 활용하여 지배자로서의 여성 또는 공격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복을 차용한 복식이 아닌 전통적인 여성복식을 코드로 삼아 전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코르셋을 여성성의 자발적 표현으로 보는 관점에서 패션은 여성에게 할당된 역할에 도전하는 잠재적인 수단이 된다.

## 2. 억압의 도구로서의 코르셋

앞서 고찰한 스틸, 쿤즐, 맥도웰 등과는 반대로, 쉴론(Tseelon, 1995) 등은 여성성은 서구에서 여성의 자아에 대한 경험을 구속하는 모순적인 범주라고 규정하였다. 쉴론은 이러한 모순된 양면 가치(ambivalence)로 인해, 여성은 승산 없는 상황(no-win situation)에 놓여 여성의 미는 기껏해야 일시적인 상태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쉴론은 여성이 자신을 매혹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도록 강요받으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문화적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회가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관리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자신감의 결핍과 천박함이라 비난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쉴론은 권력과 쾌락의 근거로서의 패션의 가능성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즉, 가부장적 사회 구조는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부추기고 자아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하여, 미와 자존감을 결부시킨다는 것이다.

페미니즘 영화이론가 멀비(Mulvey, 1998)는 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은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여성적 에티켓과 미에 대한 억압적 이상을 만들어내어 가부장제의 불균형적 권력관계를 재생산한다고 하며 '남성의 응시(male gaze)'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이는 남성의 욕망에 대한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관한 표현으로, 멀비는 미디어가 여성을 스펙타클(spectacle)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성의 몸은 남성의 몸보다 미학적 시선에 더 많이 놓이게 되며, 편재하는 시선 아래 놓인 몸은 시선에 봉사하기 위해 각종 소비가 행해지는 소비문화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푸코(Foucault, 1975/2016)가 판옵티콘(panopticon)의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여성들은 보이지 않는 시선의 권력을 내면화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몸을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시각이다. 현대 사회에서 타자화 된 시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미디어로, 미디어가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이미지들은 우리를 스스로 감시하게 하여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자발적인 결심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담론



에 의해 자신의 욕망이 구성된 것이다.

브럼버그(Joan Jacobs Brumberg)는 코르셋도 자발적으로 선택되면 여성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대상화하는 능동적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는 스틸의 견해는 소비주의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한 주장은 자아표현을 집합 행동의 결과가 아닌 그 자체를 최종적 가치로 간주하는 해석인데, 코르셋은 개인적인 심리에서 출발한 충동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as cited in Ruark, 2011). 한편 울프(Wolf, 1991)는 미에 관한 신화가 여성의 외모를 사회적 가치의 표식으로 작용하게 하여 젊음과 날씬함으로 정의되는 성취하기 어려운 외양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몸과 자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여 여성이 잠재적으로 해롭거나 불건전한 외모관리에 시간, 돈,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자극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에서 여성의 이미지는 구성의 산물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코르셋은 산업적으로 제조되고 미적 규범에 따라 짜깁기 된 문화의 산물이 된다. 코르셋을 통해 여성성은 장식의 체계로 구성되며, 여성의 몸은 가부장적 문화의 지배적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서구복식에서 고래뼈 코르셋은 극적으로 신체에 변형을 가하는데 사용되었다. 스테이(stay)와 리본으로 구성된 고래뼈 코르셋은 살을 파고들었을 뿐 아니라 내부 장기의 위치를 변화시키고 파괴하여 결국 유산 등의 수많은 질병을 초래했다 (Rudofsky, 1984). 베블렌(Thorstein Veblen)은 코르셋이 여성의 활력을 감소시켜서 영원히 일에 부적합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일종의 수족 절단이라고 표현했다(as cited in Bordo, 1993/2003). 코르셋을 입은 여성은 앉거나 몸을 굽히기 어려웠으며 실신하기도 했을 뿐 아니라, 코르셋에 맞추기 위해 갈비뼈 제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Weibel, 1977). 1878년의 한 광고 카피에서 코르셋이 잘 훈련된 정신과 잘 통제된 감정의 모니터라고 한 것과 같이(as cited in Bordo, 1993/2003), 대중 잡지는 종종 꺾이는 코르셋을 견디는 것과 자기 절제 및 통제를 연결 지어 표현하였다.

19세기의 의사들은 코르셋이 여성의 토르소에 일 제곱인치당 약 36kg의 압력을 가하고 흉강을 조여 내장에도 압박을 가한다고 비난하면서 코르셋으로 인한 질병과 심지어는 죽음에 대해 경고하였고 어떤 의사는 코르셋을 중국의 진축에 비유하기도 하였다(Ruark, 2011). 이후 학자들은 코르셋으로 대표되는 미의 기준이 여성을 압박하는 방식에 관해 관심을 가져왔다.

이와 같이 코르셋은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구속하여 여성의 몸을 순종적으로 만들고, 여성 자신을 통제적 응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도구로 작용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코르셋은 여성을 남성의 욕망에 대한 수동적 대상으로서 표현하는 것이며, 나아가 여성의 외모에 관한 사회적 가치의 표식으로 작용하여 성취하기 어려운 외양에 특권을 부여하게 된다.

이상의 맥락에서 유추해보면 코르셋은 사라지지 않고 내면화되어 여성성을 통제하는 도구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미용업계는 젊고 날씬한 몸으로 구체화된 이상적 여성미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소비제품과 급진적인 체형관리법을 판촉한다. 이러한 경향은 또 다른 불안감과 위험한 행동양식을 장려하고 문화적 초점을 여성의 외모에 맞추게 하였다. 체형을 개선하고 재창조하도록 고안된 테크놀로지의 진보로 여성은 자신의 실제 몸과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불확실하고 모호한 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외모에 대한 테크놀로지는 몸의 부분을 개선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Fortunati et al., 2003). 상품이 몸을 변형하는 현상이 초래되었고, 이는 후기자본주의의 생산과 소비의 순환을 위한 도구로서 코르셋이 여성의 몸을 식민지화하고 지배한다는 포슈(Faurschou, 198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 3. 코르셋의 양면성

이제까지 고찰한 바와 같이 코르셋은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그려지기도 하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코르셋은 정숙성의 목적을 위해 몸을 감싸면서도 성적 매력의 과시를 위해 타인의 주목을 끌고자 하는 이중적이면서도 상호

모순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이러한 두 가지의 상충하는 동기는 코르셋 착용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을 일으킨다.

전술한 바와 같이 쿤즐(Kunzle, 2006)은 코르셋은 단순히 여성의 속박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하면서, 속박인 동시에 자기표현의 양가적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쿤즐은 코르셋의 폐기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해방과 연결되었으나 코르셋이 여성성의 새로운 표현으로 다시 등장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코르셋은 가부장제의 억압의 증거로서의 불편한 여성복 아이템이라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에 반박하였다. 쿤즐이 여성에게 코르셋의 의미가 타이트레이싱으로부터 얻는 성적 쾌감이라 해석한 것은 여성적 동인(female agency)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저항으로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씨젠더(Thesander, 1997)는 쿤즐이 코르셋의 에로틱하고 페티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손상은 간과하였다고 비난하면서, 그의 분석은 여성의 몸을 속박하여 남성에게 에로틱한 대상으로 만드는 구속적인 코르셋에 대한 남성적 환상이므로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씨젠더는 분명 여성이 코르셋을 착용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자유지'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자유선택'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하면서, 코르셋은 몸을 변형하여 부과되는 요구를 충족시켰고 여성은 코르셋을 착용해야 하는 사회적 압력에 굴복해야 했다고 논하였다.

한편 Gamman and Makinen(2007)은 쿤즐이 코르셋을 단순히 여성의 사회적 제약과 종속의 상징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하며 빅토리아 시대뿐 아니라 현재의 코르셋은 수많은 서로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여성 억압의 상징으로서의 코르셋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쿤즐의 방법론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특정한 여성들이 타이트레이싱으로부터 성적 쾌감을 추구했던 것을 대다수의 여성의 삶에서의 코르셋의 의미를 대변하는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타이트레이서가 압박에 의한 쾌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보는 이도 가는 허리의 시각적 인상으로부터 에로틱한 쾌감을 느꼈을 것이므로, 허리를 죄는 것을 즐기는 것은 항상 여성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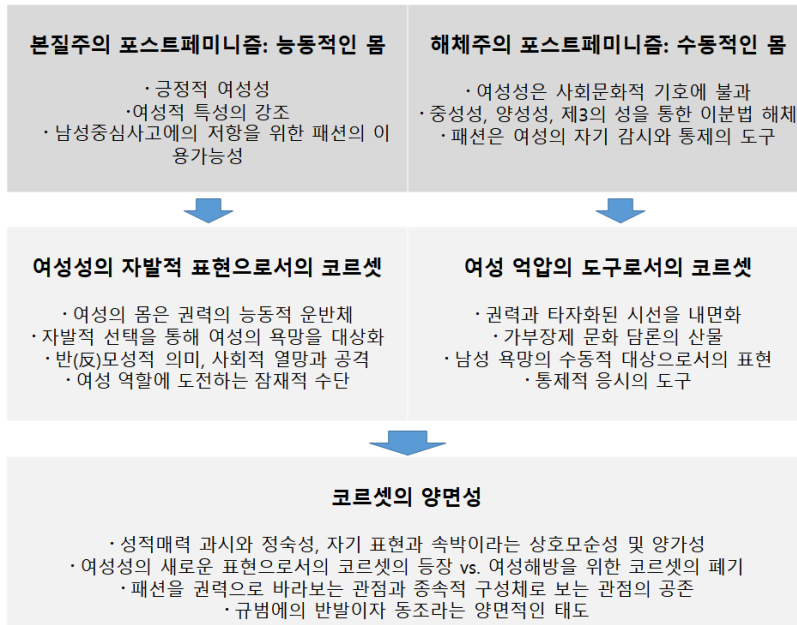
쿤즐의 주장에는 결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쿤즐의 논리는 여성의 동인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코르셋에 관한 패션학자들의 관점은 양면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복식 및 패션의 양면성에 관해 사피르(Edward Sapir)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 동조성이라는 양면성을 패션의 기본으로 보았으며 (as cited in Kaiser et al., 1995), 데이비스(Davis, 1992)는 여성들이 문화적으로 규범화된 정체성을 패션의 양면성을 통하여 표현하였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윌슨(Wilson, 1990)은 패션은 양면성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현대 서구사회는 미디어의 넘치는 이미지와 자극물로 가득 차 개개인은 이미지와 마케팅 전략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욕망을 지배하고 창조하는 제품을 소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여성은 특히 신체 관련 제품 등의 소비를 통해 권력을 부여 받으면서도 동시에 미와 매력에 대한 문화적 이상의 추구에 의해 구속된다.

이렇듯 몸을 억압과 권력의 장으로 간주하는 페미니즘과 달리 포스트페미니즘에는 페미니즘에서는 몸과 패션에 대한 여성의 양가감정을 인정한다. 여성과 패션에 대한 두 가지 대치되는 관점, 즉 패션을 권력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패션을 종속적 구성체로 보는 관점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슈(Faurschou, 1987)는 패션은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하지만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을 자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맥락에 따라 여성의 날씬한 몸은 여성의 무력함을 암시하기도 하고, 여성의 자율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패션이 여성의 몸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기의가 표현되는 기표의 총체로 만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는 지배적인 문화가 여성의 몸에 부과하는 의미를, 한편으로는 그러한 위치로부터 여성의 몸을 해방시킴을 암시하는 것이다 (Rabine, 1994). 이와 같이 여성의 몸에 관한 갈등과 모호성에 대한 용인의 정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협상되고 있다.

윌슨(Wilson, 2003)이 언급한대로 '욕망이자 두려움이며, 쉬크함의 외피, 글래머의 아우라인 패션의 본질은 여전히 모호하다. 사회마다 바람직한 것



〈그림 2〉 포스트페미니즘 시각에서 분석한 코르셋의 양면성

과 금기시되는 것, 동경의 대상과 혐오의 대상을 규정하는 가치 체계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규범에 대한 동조이자 반발이라는 측면에서 코르셋에는 미에 대해 모순되고 양면적인 태도가 표현된다.

이제까지 고찰한 포스트페미니즘 이론과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코르셋에 관한 관점 및 양면적 태도를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 IV. 요약 및 결론

실버만(Silverman, 1986)은 복식은 개개 주체의 필요조건이고 몸을 표현함과 동시에 인간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복식은 몸의 조건에 따라 형태가 이루어지므로 지속적으로 몸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여성성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몸 이미지의 변화는 패션에서의 여성 몸의 표현에도 변화를 주게 되었다. 요컨대 몸은 그 자체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을 통해 표현된다.

권력은 신체와 외모에 대한 문화적 규범에 동조 또는 저항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으므로, 특정

한 외모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죄책감과 쾌감을 모두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몸에 대한 모순된 이데올로기는 여성 삶의 모순을 이해하고 몸에 접근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정신과 연결되는데, 이는 패션을 억압적이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한 이중적인 구조로 인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패션과 여성의 몸의 관계에 대한 페미니즘의 양분된 관점과 그 양면성 및 모호성에 대해 논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코르셋을 중심으로 몸-패션(body-fashion)에 관한 포스트페미니즘 관점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몸과 패션에 관한 포스트페미니즘과 관점을 코르셋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몸을 능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포스트페미니즘의 관점에서는 패션의 미학은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니며 반드시 남성의 응시를 끌도록 고안된 것도 아니다. 즉, 복식의 유행은 성적 유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성적인 유희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기준에 비하면 중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코르셋은 자신의 환경을 지배함으로써 문화적 이상미를 전파하고 유지하는 여성 스스로 참여를 반영한다. 이러한 시

각에서 여성의 몸은 개인 권력의 운반체로 작용하는데, 코르셋을 통해 여성은 지배적 미에 대한 문화 규범을 수용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할 수 있다. 여성은 코르셋을 도구로 하여 여성성에 대한 통제적 실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이를 즐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코르셋을 자발적인 복식 표현의 동기로서 여성성을 능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다.

반면, 몸에 대해 수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포스트페미니즘 학자들은 여성이 남성의 응시를 내면화하고 자신을 남성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며, 여성의 외모에 대한 문화적 이상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자기 감시를 하게 할 뿐 아니라 문화적 이상에 순응하기 위해 몸을 조작하도록 사회화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코르셋은 여성의 몸을 억압하고 구속하여 여성의 몸을 순종적으로 변하게 하고 여성 스스로의 통제적 응시의 대상으로 만드는 도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코르셋은 남성의 욕망에 대한 수동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표현이며, 여성의 외모는 사회적 가치의 표식으로 작용하여 성취하기 어려운 외양에 특권을 부여한다.

이처럼 코르셋은 자발적인 여성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의 도구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코르셋에 대한 반대감정의 병존 및 양면성은 포스트페미니즘의 몸과 복식에 대한 여성의 양가감정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코르셋은 속박인 동시에 자기표현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며, 이는 패션을 종속적 구성체로 보는 관점과 권력으로 인식하는 관점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패션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데 사용되었다면 패션은 또한 그것을 전복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여성은 패션의 희생양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역설적으로 패션은 여성적인 쾌락을 제공하는 것이다. 패션은 문화적 의미에 도전하는 외모에 대한 실험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은 패션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그 실험을 즐기는(celebrate) 것이다(Evans & Thornton, 1989). 현대 패션시스템은 이제 물질적인 복식에 의해 촉발되는 비물질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인식된다. 여성이 남성보다 패션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여성이 몸의 스타일링(body styling)을 통한 커뮤니케

이션에 더 많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패션은 은폐와 노출, 동조와 저항의 양면성으로 인해 패션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나, 모호성의 인정은 패션과 몸의 이해의 중심이 된다. 패션의 양면성과 모호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패션을 통해 또 다른 자기가 되어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속성이라는 점이 존중되어야 한다(최현숙, 2000). 인간에게는 상반된 특성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존재하며, 패션은 개인에게 이 양면성을 표현하는 역량을 부여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코르셋을 통해 고찰한 패션의 양면성이 기본적인 인간 조건 중의 하나라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패션은 패션디자이너와 착용자에게 모두 새로운 영감을 불어 넣는 끊임없는 원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포스트페미니즘 시각에서 코르셋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적 관점에 집중한바 현대패션에서의 사례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내포한다. 이에 현대패션에서 급증하고 있는 포스트페미니즘 패션이미지의 관점별 사례를 제시하고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 참고문헌

- 김영희, 이명호, 김영미. (1992).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3, 35-79.
- 손보경. (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페미니즘 양식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정. (2002).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패션의 여성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혜. (2011). 패션에 나타난 몸의 이상화. *한국의류학회지* 35(10), 1215-1227.
- 정현숙, 정현숙. (1997). 포스트모던 패션에 표현된 페미니즘 연구. *복식* 35, 231-252.
- 주영은. (2006). 페미니즘 미술의 특성이 나타나는 세라믹 오브제에 관한 연구. *한국도자학연구* 3(1), 1-15.
- 최현숙. (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페미니*

- 즘·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영미문화페미니즘학회. (2000).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서울: 민음사
- 홍석준. (2004). 몸과 문화, 그리고 몸의 정체성. *인문연구*, 47, 141-172.
- Benstock, S., & Ferriss, S., (1994). *On fashion*. Piscataway,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ordo, S. (2003).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박오병 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 (원저 1993 출판).
- Buckley, C., & Fawcett, H. (2002). *Fashioning the feminine*. London · New York: I. B. Tauris Publishers.
- Buxbaum, G. (2006).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Munich: Prestel.
- Davis, F. (1992). *Fashion, culture, and ident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s, K. (1997). Embodiment theory. In K. Davis, (Ed.), *Embodied practices: Feminist perspectives on the body* (pp.1-23). London: Sage Publications.
- De Beauvoir, S. (1961). *The second sex*. New York: Bantam Books.
- Donovan, J. (1999). *페미니즘 이론 (김익두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92 출판)
- Estrich, S. (2000). *Sex and power*. New York: Riverhead Books.
- Evans, C., & Thornton, M. (1989). *Women & fashion: A new look*. London: Quartet Books.
- Evans, M., & Lee, E., (2002). *Real bodies: A sociological introduction*. New York: Palgrave.
- Faurschou, G. (1987). Fashion and cultural logic of postmodernity.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and Social Theory* 11(1-2), 68-82.
- Finkelstein, J. (1996). *After a fashion*. Carlton: Melbourne University Press.
- Fortunati, L., Kats, J. E., & Riccini, R. (2003). *Mediating the human body: Technology, communication, and fashion*. Mahwah: Lawrence Erlbaum.
- Foucault, M. (2016). *감시와 처벌 (오생근 역)*. 서울: 나남출판. (원저 1975 출판)
- Gamman, L., & Makinen, M. (2007). Female fetishism. In M. Barnard, (Ed.), *Fashion theory: A reader* (pp.585-600). New York: Routledge.
- Gibson, P. C. (2000). Redressing the balance, patriarchy, postmodernism and feminism. In S. Bruzzi, & P. C. Gibson, (Eds.), *Fashion cultures: Theories, explorations and analysis* (pp.349-362). New York: Routledge.
- Humm, M. (1995). *페미니즘 이론 사전 (심정순, 염경순 역)*. 서울: 삼신각 (원저 1995 출판).
- Kaiser, S. B., Nagasawa, R. H., & Hutton, S. S. (1995). Construction of an SI theory of fashion, part 1: Ambivalence and chang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3(3), 172-183.
- Kawamura, Y. (2005). *Fashion-ology: An introduction to fashion studies*. Oxford · New York: Berg.
- Kunzle, D. (1982). *Fashion and fetishism: A social history of the corset, tight-lacing, and other forms of body-sculpture in the west*. Totowa, NJ: Rowman & Littlefield.
- Lynn, E. (2010). *Underwear fashion detail*. London: V&A Publishing.
- McDowell, C. (1992). *Dressed to kill: Sex, power and clothes*. London: Hutchinson.
- Mulvey, L. (1998). *Visual and other pleasur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Owens, C. (1993). 타자들의 담론: 여성해방 비평과 포스트모더니즘. H. Foster, (Ed.), *반미학: 포스트 모던 문화론 (윤호병 역)* (pp.99-131). 서울: 현대미학사 (원저 1991 출판)
- Rabine, L. W. (1994). A woman's two bodies: Fashion magazines, consumerism, and feminism. In S. Benstock, & S. Ferriss, *On fashion* (pp.59-75). Piscataway,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Ruark, J. (2011). A second look at the big squeeze. In L. Welters, & A.

- Lillethun, (Eds.), *The fashion reader* (pp.232-236). Oxford · New York: Berg.
- Rudofsky, B. (1984). *The unfashionable human body*.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
- Silverman, K. (1986). Fragments of a fashionable discourse. In T. Modleski, (Ed.), *Studies in entertainment: Critical approaches to mass culture* (pp.139-152).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Steele, V. (1985). *Fashion and eroticism: Ideals of feminine beauty from the Victorian era to the Jazz age*.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teele, V. (2007). Fashion and fetishism. In M. Barnard, (Ed.), *Fashion theory: A reader* (pp.576-584). New York: Routledge.
- Summers, L. (2001). *Bound to please: A history of the Victorian corset*. Oxford · New York: Berg.
- Thesander, M. (1997). *The feminine ideal*. London: Reaktion Books.
- Tseelon, E. (1995). *The masque of femininity: The presentation of woman in everyday life*. London: Sage.
- Tyner, K. E., & Ogle, J. P. (2009). Feminist theory of the dressed female body: A comparative analysis and applications for textiles and clothing scholarship.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7(2), 74-105.
- Weibel, K. (1977). *Mirror, mirror: Images of women reflected in popular culture*. New York: Anchor.
- Welters, L., & Lillethun, A.(Eds.)(2007). *The fashion reader*. Oxford·New York: Berg.
- West, C., & Zimmerman, D. H. (1987). Doing gender. *Gender and Society* 1(2), 125-151.
- Wilson, E. (1984). Fashion and postmodernism. In J. Storey, (Ed.),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pp.444-455). New York: Harvest Wheatsheaf.
- Wilson, E. (1990). These new components of the spectacle: Fashion and postmodernism. In R. Boyne, & A. Rattansi, (Eds.), *Postmodernism and society* (pp.219-221). London: Mc Millan.
- Wilson, E. (2003).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 Wolf, N. (1991). *The beauty myth*. New York: Doubleday.